

사우디아라비아 오일달러 투자현황

- 200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금년들어 한때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유가 행진을 계속함에 따라 세계최대의 산유국이자 제1의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오일달러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재정수지는 515억달러의 사상 최고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, 무역수지도 1,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전망되고 있음.
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풍부해진 오일달러를 활용해 공공부채 상환, 교육의료시설 확충 및 사회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.

※ 최근 오일달러 유입규모

원유는 수출의 약 90%, 재정수입의 70~80%, GDP의 약 40% 차지하고 있으며, 고유가에 따라 2003년 96억달러, 2004년 261억달러의 재정흑자 실현하였고, 2005년도 정부재정은 유가급등에 따라 500억달러 초과한 것으로 추정됨.

- 사우디정부의 금년 예산은 석유수출증대로 인한 재정수입 확대와 함께 전년대비 22% 증액 편성했으며, 부문별로는 교육 훈련 186억 9000만달러, 보건복지 72억 3000만달러, 도시개발프로젝트 28억 4000만달러, 교통 및 통신 23억 6000만달러, 상하수

시설개선 45억 9000만달러, 농업 및 인프라 5억 3000만달러, 기타(인건비 등) 384억 3000만달러 등으로 편성한 바 있음.

- 지난 8월 즉위한 신임 압둘라 국왕은 취임과 함께 지난 20년간 동결된 공무원, 군인 등의 급여를 일률적으로 15% 인상하고, 2004년도 재정흑자(261억달러)에 대한 활용계획을 발표했는데, 공무원 급여인상에 45억달러, 사회간접시설 및 교육복지부문 80억달러 5년간 균등 투자, 부동산기금 확충 24억달러, 주택건설 27억달러, 수출촉진기금 40억달러, 산업개발기금적립 35억달러, 국가부채 상환에 120억달러 등을 추가 투자할 계획임.
- 한편,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향후 15년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사회인프라 구축 1,407억달러, 석유화학부문 개발 920억달러, 전력 및 수자원 개발 1,780억달러, 통신부문 600억달러, 관광부문 533억달러, 천연가스개발 500억달러, 농업부문 개발 283억달러, 정보기술(IT) 107억달러, 교육분야 100억달러 등 약 7000억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.
- 이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될 전망이다. 석유수입 증대에 따른 재정확충 및 산업발전 추세에 따라 독립 수전력 (IWPP) 형태의 담수공장과 전력프로젝트 지속발주가 예상되는데, 2024년까지 발전·담수부문에 9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임.
- 사우디정부의 석유화학 허브화 정책, 주베일과 안부 산업단지 조성, 사우디아라비아 Aramco사의 가스개발확대 등으로 더 많은 석유화학공장 건립 예상되는데, 2020년까지 석유화학 공장 건설에 1400억달러 투자가 예상된다.

- 원유 및 가스생산, 정유공장, 가스처리공장과 광물개발 및 광물을 이용한 비료와 알루미늄공장 건설공사 발주도 예상되는데, 석유가스부문에 2024년까지 1300억달러 투자가 전망됨.

- 기타 교통,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는데, 철도건설(동서연결 BOT사업, 광물운송용 산업철도)과 제다공항, 도로확장공사 등 교통부문 투자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며, 파이프라인, 하수도시설공사, 철강 및 시멘트공장, 주택, 학교, 병원, 도로 등 토목공사 등도 활발히 전개가 예상됨.

* 본 자료는 수출입은행 두바이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임.

전문연구원 차 경 진(☎3779-6686)
E-mail : chakj@koreaexim.go.kr